



# 주간 통일정세

2007-0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경제건설 관련 노동당 활동 부각(1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이 13년만에 열린 ‘전국당세포비서대회(10.26~27, 평양)’를 계기로 노동당의 사업을 “경제강국 건설”로 전환했음을 강조
  - “노동당의 기층조직들이 당의 경제정책 실현을 주력해야 할 과업으로 내세워 새 시대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 **육류확보를 위한 염소 기르기 장려(11/9, 조선중앙방송)**
  - 염소 기르기에 관한 기술혁신 경기(기간: 2월~10월)가 염소목장과 축산전문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등을 비롯한 210여 개 염소기르기 단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에서 진행
  - 주민들이 먹을 육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염소 기르기를 적극 장려
  - 북한에서는 염소와 토끼 등 초식동물의 장점을 고려해 1996년부터 전국에서 초지 조성과 초식동물 사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도록 독려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인 전력·석탄·금속·철도 혁신 강조(10/30, 민주조선)**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불리는 전력·석탄·금속·철도 분야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초 공업부문 발전이 현재의 ‘경제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

####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11/8, 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627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군인들이 환경보호사업을 활발히 해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수행인물은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과 리용철 노동당 제1부부장 등임
  - 제479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1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군부대 예술 공연 관람(11/5, 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1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인민군 제682부대와 제3993부대 산하 중대 군인들의 예술공연을 관람(11/7, 조선중앙통신)



- 현철해 대장, 정태근 중장 등이 동행
- 제31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참가한 인민군 제775부대와 제176부대 산하 중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11/5, 조선중앙통신)

#### 다. 기타

- **평양 겨울채비…스티로폼 보온재 보급(11/10, 조선신보)**
  -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 겨울을 앞두고 스티로폼과 시멘트를 섞어 만든 새 보온재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이중고’를 막기 위해 노력
- **효능 10배 기능성 김치 개발(11/9, 평양방송)**
  -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최근 가루 형태의 유산균을 넣어 기존에 비해 효능을 10배 이상 높인 기능성 김치를 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소개
- **관광명소 ‘사리원 민속촌’ 완공(11/7, 조선중앙통신)**
  - 황해북도 사리원시 ‘민속거리(민속촌)’가 3년만에 완공,
  - 사리원 민속거리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리원시가 2004년부터 민족의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건축기술을 결합해 건설한 민속촌으로, 완공 이전부터 북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
- **북한여자축구 리금숙, 아시아 올해의 선수로 선정(11/6, 연합뉴스)**
- **예체능 우수자 대학 ‘특례입학’(11/6, 조선신보)**
  - 지난달 24~30일 평양에서 열린 ‘제11차 전국학생청소년예술개인경연’ 소식을 전하며 “1등을 한 학생에게는 김원균 명창 평양음악대학(무시험) 입학자격이 부여됐다”고 보도
  - 북한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소·중학교(초·중·고) 체육 특기생 가운데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태권도, 씨름 등 전국대회 성적 우수자 17명을 “유능한 국가체육선수 후비(후진)”로 선발해 첫 ‘4·18최우수선수상’을 주고 조선체육대학과 지방의 각 사범대학 체육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
- **일본식·봉건왕조 찬양 지명 모두 개칭(2007년 2호, 문화어학습)**
  - 북한은 그동안 일본식 등 외래어와 봉건왕조 찬양 등 “정치사상적으로 불건전한” 지명(地名)을 모두 바꿔 “고장 이름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털어버렸다”고 보도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역할 강조(11/10, 노동신문)**
  -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
  - “냉전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근시안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반통일 정책은 어리석은 것”이며, “미국에는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응당 기여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있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라 함
  
- **주한미군 훈련 비난(11/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주한미군 제7공군이 “북침작전 계획에 따르는 실동능력을 검토, 완성하기 위한 공중전쟁 연습을 벌였다”고 비난
  - 조선중앙방송도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지만 뒤에서는 북침전쟁의 검은 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대홍단호 사건’에 대한 미국협력 부각 (11/8, 조선중앙통신)**
  - 미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구조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이번 사건은 테러와의 투쟁에서 조·미 협력의 상징”임을 강조
  
-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주장(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29주년을 맞아 ‘범죄적인 침략기구 해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연합군사령부는 지금까지 남조선(남한)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모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등을 주관해왔다”며 연합사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 미국이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유명무실한 군사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으로 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 또한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가 “이름만 다를 뿐 본질상 다 같은” 것이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침략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남북은 10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분야별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발표

● **南·北·中, 대북발전설비 제공 부속협의를 오늘 종결(11/11, 연합)**

- 10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대북발전설비 제공방안을 의제로 열고 있는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남·북·중 3자 부속협정이 예정대로 11일 종결
- 회담 소식통은 이날 “오전 9시 북중 양자접촉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참가 대표단 간 양자협정이 연쇄적으로 열릴 계획이며, 양자협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결회의를 열고 협의를 끝마칠 예정”이라고 밝힘.

● **남북, 개성서 총리회담 의제 집중조율(11/9, 연합)**

- 11/14~16일 진행되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2차 예비접촉이 9일 개성에서 개최
- 남측은 남북정상선언 10개 항을 세분화 한 45개 의제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북측에 제시하고 핵심의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도 제안
- 이번 접촉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측에서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역시 3명의 대표가 참석

● **남북, 평양서 양돈협력사업 진행키로(11/5, 통일부)**

- 남북은 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평양에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 두(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으며
- 이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 상대방측에 통보하기로 함.
- 남측은 또 양돈협력사업과 관련한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장비 및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양측 전문가의 현장 답사를 이달 중 실시하기로 함.
- 북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남측 인원들의 사업 현장 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수송 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함.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6자회담

##### ● 6자회담 참가국들, 일에 12월분 대북 중유지원 요구

- 「지지」(時事) 통신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제3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10/29~30)에서 12월분 중유 5만 톤의 지원을 일본이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11/4)했음.
- 일본은 이에 대해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12월 부담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 8월 한국,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러시아 순으로 부담하고 있음.

##### ● 남·북·중, 비핵화 실무그룹 부속협의 개최(11/10~11)

- 제3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후속조치로 남·북·중 3자 부속협회가 중국 선양(瀋陽)에서 대북 발전설비 제공안을 의제로 개최되었음.
- 이번 부속협의를 앞두고 한·미·중·러 4개국은 대북 지원 중유 95만t 가운데 50만t을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3~4개월간 국제 가격의 평균가로 환산, 2억 달러 상당의 발전설비를 제공키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첫날 회의에서 한·중은 양국의 분담분 제공방식을 놓고 북한과 집중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나. 미·북 관계

##### ● 미 언론들, “북핵 6자회담 성공시 미군유해 발굴 재개 가능”

-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핵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북한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고 보도(11/4)했음.
- 미 국방부는 1996년부터 발굴 작업이 중단된 2005년 5월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모두 225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해발굴비로 북한에 약 2천2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음.
- 아직까지 8천100명의 유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 미 국무부, “북 불능화 착수, 획기적인 새 국면”(11/6)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영변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시작됨으로써 우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



예전에는 달성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 **미 국무부, “북한 인권은 주요 의제”(11/7)**

- 손 매크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북한측에도 일관되게 제기해온 아주 중요한 의제였다”고 지적했음.

● **부시, 북한문제 임기 내 3대 과제로 꼽아**

- 부시 미 대통령은 독일 RTL TV와의 인터뷰(11/7)에서 임기 막막 해의 3대 주요 과제 중 첫 번째는 국가를 계속 무사히 보호해내는 것, 두번째는 이란, 다르푸르, 미얀마 사태와 함께 북한 문제를 꼽고, 우방들과 이들 주요 외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 **미, 지난 9월 북에 170만 달러 수출**

- 미 상무부가 발표(11/9)한 「국가·지역별 수출입 무역수지」에 따르면 2005년 11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지난 9월 재개돼 미국에서 북한으로 170만 달러 어치의 물품이 수출됐다고 밝혔음.  
 - 미·북간 교역은 2002년의 2천500만 달러가 최고기록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금수 조치 완화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 11월 이후 중단됐음.  
 - 그동안 미국의 대북 주요 수출품은 밀, 쌀, 옥수수, 채소, 식용유, 낙농제품 등이었고, 주요 수입품은 약재와 성계 등 수산물이었으며 매년 10~2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음.

● **「워싱턴 포스트」, “북, 은둔 벗고 개방 가속화”(11/9)**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핵문제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 착수를 계기로 획기적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은둔의 왕국’ 북한에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개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개방의 사례로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과 평양 공연계획 논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 직항로 백두산 관광 허용, 평양 시내에 남북합작으로 치킨 전문점 개설 예정 등을 제시했음.  
 -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북한 화물선에 대한 미 해군의 구출작전도 북한 안팎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미·북 관계정상화를 놓고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을 할 경우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퇴임 전 서둘러 ‘선물 보따리’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분석했음.

-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개방 과정이 느리고, 변덕스러운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 미에 HEU 프로그램 해명 시도

-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의도가 없었음을 미국측에 입증하려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11/10)했음.
- 북한 당국이 핵활동 상황을 올해 말까지 신고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미국 실무 전문가들이 우라늄 문제에 관련된 시설이나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음.
-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그들(북한)이 몇 가지를 보여줬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해명은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중, 대북 관광열차로 올해 2만9천명 방북

- 중국 단둥 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전용열차 운행이 시작된 지난 4월 13일부터 운행이 종료된 10월 30일까지 총 2만9천11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11/5).
- 중·북 양국은 아리랑 공연 관람 등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용열차를 운행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송민순 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회동(11/7)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 간에 내려질 경우 ‘정상급(top level)’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한·미, 3~4개국 ‘정상회담’ 또는 ‘정상선언’ 검토

- 정부 고위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11/8)에서 “정상들의 의지 표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일단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회담을 목표로 하되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굳이 정상들이 만나지 않더라도 의지 표명은 할 수 있는 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음.

- 이는 북핵폐기 진척 정도를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전 종전선언 개시를 검토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3~4개국 간 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정상들 간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됨.

#### 나. 미·중 관계

##### ● 미·중, 군사 핫라인 개설 합의(11/5)

-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베이징에서 차오강찬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했음.

#### 다. 미·일 관계

##### ● 부시, “안보리 새 상임이사국으로 일본만 지지”(11/7)

- 부시 대통령은 독일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독일이 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일본을 제외하곤 다른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그런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음.

##### ● 일 자위대, 미 MD 실험에 첫 참가

- 미군은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 미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 2기를 처음으로 동시에 요격하는 실험을 실시(11/8)하였음.
- 이 실험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였음.

##### ● 미·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11/16)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가 지난 6년 동안 인도양에서 미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급유지원의 중단 등으로 미·일 동맹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취임 후 첫 외교로 부시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후쿠다 총리는 북핵 불능화와 일본인 납치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일본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돌아가고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뜻을 부시 대통령에 전달할 것임.

#### 라. 중·일 관계

##### ● 일, 대중 마지막 엔차관 463억 엔 제공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기자회견(11/8)에서 “최종적으로 463억 엔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엔차관을 원만하게 종



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서명 후 이듬해부터 시작된 엔차관은 이로써 2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엔차관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데다 중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공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지난 2005년 양국 간에 베이징 올림픽 개최 때까지만 계속하기로 합의했었음.
- 일본의 대중 엔차관은 그동안 총 3조 엔이 제공돼 철도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에 사용됐음.
-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해온 엔차관은 종료되지만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됨.

☀ 동북아연구실 제공